

로컬의 삶과 지정학적 글쓰기

- 염인수의 『깊은 강은 흐른다』를 중심으로*

김 화 선(배재대)

< 목 차 >

- | | |
|-----------------------------------|----------------------|
| 1. 시작하며 | 4. 염인수 문학의 발원지, 해방공간 |
| 2. 일상의 기록, 로컬의 삶을 담은 기록문학으로서의 글쓰기 | 대전의 문학 풍경들 |
| 3. 지정학적 글쓰기, 문학을 향한 열정과 작가로서의 정체성 | 5.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공간 대전에서 활동한 염인수의 장편기록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에 나타난 로컬의 의미를 살펴보고, 염인수 문학에 반영된 지정학적 글쓰기의 의의를 가늠해 보았다. 염인수는 좌익 활동을 이유로 도피생활을 시작하여 노동자로 숨어 지낸 자신의 인생사를 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에 기록으로 남겼다. 이 작품은 표면상으로 염인수의 분신인 '나'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염인수는 단 한 순간도 작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염인수에게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끊임없이 사유하는 예술적 실천이었다. 또한 염인수가 작가로서의 정체를 고뇌하며 『깊은 강은 흐른다』에 복원해 놓은 대전의 문학 풍경은 해방공간 대전문학장의 면면을 제시하는 한편 염인수 문학의 시원이 대전이라는 로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깊은 강은 흐른다』에서 '깊은 강'으로 치환된 염인수의 삶은 지배 담론이 배치한 패러다임 외부에서 경계

사유를 펼친 지도그리기의 흔적으로 남아 지역문학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 엄인수, 『깊은 강은 흐른다』, 대전, 지역문학, 로컬, 지정학적 글쓰기, 경계사유, 기록

1. 시작하며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예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 <간츠펠트(Ganzfeld)>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빚어내는 새로운 감각 세계를 선사한다. 관객들이 <간츠펠트>라는 작품의 영역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색깔과 형상은 왜곡된 것이며 우리의 시각이 감지하는 빛과 색이 결코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완전한 영역’ 혹은 ‘전체 시야’라는 의미의 심리학 용어인 ‘간츠펠트 효과’에서 따온 터렐의 <간츠펠트>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시각에 의해 뒤틀리고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경계 너머를 상상하도록 이끌며 색과 색 사이, 빛과 빛 사이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리하여 <간츠펠트>뿐 아니라 <Wedgework>(2014)를 비롯한 제임스 터렐의 예술작품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익숙했던 감각적 전통과 결별하고 빛이 전하는 충격과 함께 낯설게 다가오는 공간을 재사유한다.

제임스 터렐이 우리에게 펼쳐 보인 것처럼, 감각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이-공간이 안과 밖의 페리다임을 뒤집는 순간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끌어와 “내가 생각하는 곳이 바로 나다”¹⁾라고 선언한 월터 D. 미놀로의 경계사유를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월터 D. 미놀로, 이성훈 옮김,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에코리브르, 2013,

환기한다. “내가 행동하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는 미놀로의 주장은 보편적 인식의 코드인 ‘영도의 오만’²⁾을 깨고 그간 은폐되어 온 지리-역사적 몸의 위치를 새롭게 자각하라고 요구한다. 미놀로가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생물학자들의 실험³⁾은 원래 살던 바다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굴이 새로 정착한 공간의 시간대에 맞추어 입을 여닫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몸이 경험하는 범주를 외면하고 계산된 논리의 범주 안에서 사고해 온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이끈다.

우리가 시간에 근거한 사유의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공간적 사유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단일 토목적인 가치가 억압하고 있는 다원성의 우주적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구와 비서구, 문명화된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줄 세우기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기준으로 내세워 다양한 공간적 차이를 지우고 폭력적 지도그리기를 감행해 왔다. 보편적 인식론의 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감각지대는 담론적 배치의 틀을 넘어 기존의 문학장이 지워버린 이질적인 글쓰기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인식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명화의 과정이란 것이 서구 중심으로 상상되고 구성되어 왔다는 자각이 기왕의 문학사 서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심/주변’으로 문학장을 구성하는 논리 혹은 문학사 서술의 패러다임 이면을 사유하려면 무엇보다 경계사유가 필요한데, 무릇 모든 사유는 보편적이지 동시에 지역적이며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유란 없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근대적 제도와 그것이 낳은 문화적 시스템

157~216면 참조.

- 2) 월터 D. 미놀로, 김영주 외 옮김,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현암사, 2018, 32면. 여기서 ‘영도의 오만’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초연한 중립적인 또는 보편적인 관찰 지점’으로, 관찰될 수 없는 관찰자의 지식/인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3)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Brown, F. A., Jr. “Life’s Mysterious Clocks.” *Adventures of the Mind*, ed. Richard Thruelsen and John Kobler, 159-78. New York: Random House, 1962. 월터 D. 미놀로, 위의 책, 275~276면에서 재인용.
- 4) 월터 D. 미놀로,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347~348면 참조.

에 의해 형성된 하위의 문화 형식으로 일컬어지는”⁵⁾ 지역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노력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시도되면서⁶⁾ 지역문학이 중심에 비해 열등한 문학으로 치부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의 삶에 기반을 두고 창작 활동을 이어간 작가들을 조명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은 미놀로 식의 표현을 따르자면 행동하는 그 곳, 존재하는 그 곳에 주목하여 비존재 혹은 열등한 타자로 오인된 지역의 문학‘들’을 복원하려는 시도들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학장의 경계지대에서 지워졌던 작가 염인수의 기록문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류 문학사에서 배제되고 지역의 문학사에서조차 잊혀온 염인수는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끊임없는 글쓰기를 이어감으로써 작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인물이다. 이제부터 이 글은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염인수의 대표작이라 칭할 수 있는 장편기록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에 담긴 공간으로서의 지역 즉, 로컬(local)의 의미를 숙고해보고 이를 토대로 염인수 문학에 반영된 지형학적 글쓰기의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⁷⁾

5) 송기섭,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권, 2005, 7면.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인문학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과 대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맥락과비평문학연구회, 강원영동지역의 문학을 탐구하고 있는 작가동인 <동안>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숙 외, 『소수자의 시선과 로컬리티』(맥락과비평 연구총서 11호), 도서출판 심지, 2016. 남기택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맥락과비평, 『장소, 로컬리티, 문학지도』(맥락과비평 연구총서 제12호), 도서출판 심지, 2017. 류지석 엮음,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09), 소명출판, 20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엮음, 『선망과 질서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06), 소명출판, 20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교양총서 14), 소명출판, 2013. 오연희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과 문학사』(맥락과비평 연구총서 09호), 도서출판 심지, 2014. 한상철 외, 『문학장과 로컬 히스토리』(맥락과비평 연구총서 10호), 도서출판 심지, 2015.

7) 염인수와 관련한 연구는 2017년 이전까지 김재근의 「廉仁洙와 大田·忠南의 해방

2. 일상의 기록, 로컬의 삶을 담은 기록문학으로서의 글쓰기

소설가 안희남의 추천을 받아 문단활동을 시작한 염인수(1912~2006)는 염인묵이라는 필명으로 단편소설 「고구마」(『民聲』, 1946년), 「기다리는 마음」(『藝術朝鮮』, 1947년), 「시힘」(『現代』, 1947년), 「작은 旋風」(『신천지』, 1949년)과 수필 「文學雜感」(1948년 『新聲』) 등을 발표하였으나, 해방공간 대전에서 문학가동맹 대전지부 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 소설가 김만선을 숨겨준 일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문단에서 사라진 후 삼십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소설집 『장위고개』(한일, 1983. 도서출판 심지 1988)와 창작집 『懷古』(도서출판 심지, 1987), 그리고 『깊은 강은 흐른다』(도서출판 심지, 1989)를 출간하고, 이후로는 『남산일기』(미리내, 1991)부터 『정』(미리내, 2003)에 이르기까지 6권의 수필집을 발표한다.

서지사항에서 장편기록소설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깊은 강은 흐른다』는 작가 염인수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작품이다. 6·25가 발발하여 폐허가 된 대전에서 시작하여 다시 “추억의 땅” 대전을 찾은 이야기에 덧붙여 『장위고개』와 『회고』를 출판한 소회를 서술하며 끝을 맺는 『깊은 강은 흐른다』는 염인수라는 한 인간이 살아온 생의 기록인 동시에 대

공간 문학운동」(『호서문학』 제19집, 1993. 10)이 발표되었을 뿐이었으나, 2017년부터 염인수와 안희남의 관계를 비롯하여 염인수의 문학세계 전반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염인수와 관련한 논의로 김희선의 「헤테로토피아와 로컬리티의 미학」(『동안』 제16호, 2017년 여름호), 「해방문단의 안희남이 대전문학에 끼친 영향-소설가 염인수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제65집, 2017), 「해방기 대전 소설 연구-염인수를 중심으로」(『해방기 대전문학』, 대전문학관, 2018), 「‘새 것 찾기’와 로컬리티의 서사-염인수의 문학 세계」(『어문연구』 제98집, 2018)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염인수의 대표작인 장편기록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를 대상으로 그의 글쓰기가 지니는 본질을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염인수의 문학세계 전반을 소개하는 거시적 관점의 기존 연구와 변별된다.

전 지역의 문학에 대한 소상한 보고라 할 수 있다.

흔히 “창조적 문학과 대응적 관점에”서 있는 기록문학은 실존의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경험적으로 확증이 가능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⁸⁾ 따라서 “실재적 소재의 사실성”에 충실하려는 작가의 태도와 체험을 작품화하려는 작가의 창작의도는 기록문학 장르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유기룡은 기록문학의 하위 장르를 서사적 기록문학과 교의적 기록문학, 체험적 기록문학, 실기적 기록문학, 공식적 기록문학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실기적 기록문학의 하위에 전기, 자서전, 회고록, 수기, 일기, 자성록을 포함시킨 바 있다.⁹⁾ 이 범주화에 기대면, 실기적 기록문학에 속하는 『깊은 강은 흐른다』는 염인수 자신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몸소 체험한 실재적 소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회고록이자 수기이며 일기인 동시에 문학적 자서전에 해당한다. “序. 이제 말문을 열고”에는 『깊은 강은 흐른다』가 지닌 이러한 기록문학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하고자 한다.

그 원고는 많은 연륜과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느 것은 삼십여년 어느 것은 이십년 십년을 그러나 그것은 발표를 위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때의 그 역사를 기록해 두자는 간절한 소망에 불과했다. ... 중간 생략 ... 나는 여기서 그새 긴긴 세월 숨겨 왔던 그 비밀의 장막을 한겹 두겹 헤쳐 나가면서 기록하고자 한다.¹⁰⁾

『깊은 강은 흐른다』의 창작 동기를 말해주는 이 예문을 살펴보면, 염인수가 해방공간 대전에서 창작한 단편소설들에 비추어 이 작품의 서사방식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 자신이 체험한 역사를 충실히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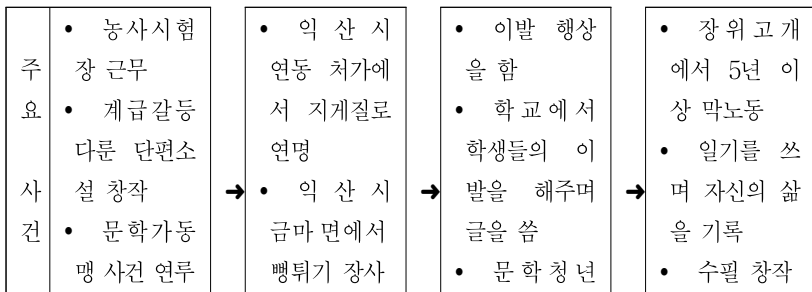
8) 유기룡, 「國文學研究에서 망각지대로 남은 記錄文學」, 『국어국문학』 제100권, 1988.12, 183면 참조.

9) 위의 글, 182면.

10) 염인수, 『깊은 강은 흐른다』, 도서출판 심지, 1989년, 12~13면.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면 수만 밝힘.

록하려는 열망이 곧 창작 동기로 작용하였다는 고백은 『깊은 강은 흐른다』가 지니고 있는 기록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바, 작가인 염인수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문단에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하게 된 과정과 문우들의 이야기, 김남선을 숨겨준 일 때문에 시작된 도피 생활의 참담한 고통까지 낱낱이 토로하여 남긴 작품이 바로 『깊은 강은 흐른다』이다. 그리하여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1인칭 서술자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우고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회고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깊은 강은 흐른다』는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 문학’으로 대전문단에 발을 디딘 염인수가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발표하지는 못할 지라도 작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처절한 생존의 기록으로 남는다.

한편, 『깊은 강은 흐른다』에 기록된 염인수의 삶은 그가 머물렀던 지역 곧 로컬(local)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애당초 지역이란 ‘경계로 구분된 토지(area)’를 의미하며, 경계로 둘러싸인 획지, 지리적·공간적인 범위를 일컫는다.¹¹⁾ 염인수가 거주한 삶의 현장인 로컬이 변이해 간 양상은 『깊은 강은 흐른다』에 남긴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1)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옮김,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심산출판사, 2011, 20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도소 수감 • 도 피의 길 떠남 		들과 삼년간 교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세의 나이로 타계
로컬	대전 (해방공간~1950년 9월 말)	이리 (현 익산: 1950년 9월말부터 3년간)	군산 (1953년 가을부터 5년간)	서울 (1959년부터 작고 시까지)

[표 1 로컬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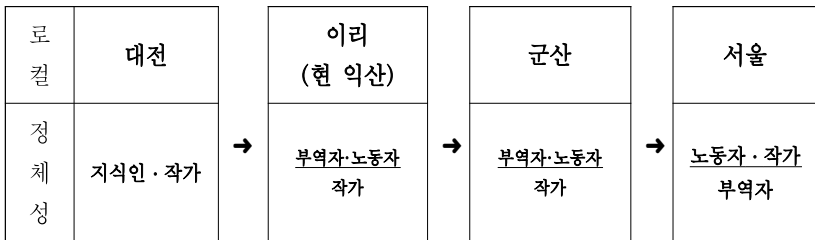
염인수는 일본의 동경농대 육종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의 농사시험장에서 근무하며 단편소설을 창작한다. 염인수에게 대전은 해방공간의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소용돌이를 체험한 공간이다. 또한 대전은 문학의 씨앗을 뿌린 지역이자 그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곳이며 동시에 그만큼 절절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염인수는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당시에 이념 활동이 빌미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과 작가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도망치듯 대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익산(당시 이리)과 군산을 거쳐 떠도는 유랑의 삶을 살아갔다.

대전에서 익산으로, 익산에서 다시 군산으로 염인수가 머물렀던 삶의 공간이 바뀌면서 그는 결코 정주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대전을 떠나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로 거주한 지역들은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현실을 마주하는 곳이었다. 염인수는 군산에서 처음 이발 행상을 하던 일이며, 고기잡이 배를 타기로 한 하루 전날 당숙이 보낸 전보를 받고 학교 이발을 시작하게 된 사연 등을 『깊은 강은 흐른다』에 자세하게 풀어놓으며 로컬에 따라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떠올린다. 군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 후 이발 행상으로 “이른 아침부

터 저녁 늦게까지 빈민촌, 난민촌, 그러한 영세민 사는 거리를 헤매”던 생활과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장위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당시의 삶 역시 일기와 회고담 형식으로 생생히 전달된다. 이처럼 대전, 익산, 군산, 서울로 이어지는 로컬의 변화 과정은 한 지식인이 노동자의 얼굴로 살아가면서 겪은 삶의 곡절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지정학적 글쓰기, 문학을 향한 열정과 작가로서의 정체성

염인수의 몸이 거주하는 로컬은 그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로컬이라 부르는 지역은 삶의 다양한 흔적들이 누적되어 있는 장소이며 시공간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장소이다.¹²⁾ 그래서 대전에서 익산, 군산과 서울로 옮겨가는 여정은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삶의 공간이 달라지면서 염인수의 정체성 또한 변화하는데, 이는 『깊은 강은 흐른다』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표 2 로컬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과정]

[표 2]는 [표 1 로컬의 변화 과정]을 축으로 하여 염인수의 정체성이 변모

12) 류지석, 「사회적 공간과 로컬리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157면.

해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전에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염인수는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력으로 인해 부역자가 되자 대전을 떠나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내몰리며 노동자로 살아간다. 그가 숨어든 익산과 군산은 ‘지식인, 작가’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서툰 노동의 공간인 동시에 부역자라는 명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했기에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불심 검문을 피해 죽을 각오로 도망쳤던 고통스러운 공간이었다. 이념의 대결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찾아간 익산과 군산은 표층적 차원에서는 부역자와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표상되는 공간이지만 그 내면에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숨어있는 공간이었다. 익산과 군산에서 익숙지도 않은 노동을 하며 희망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는 결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익산과 군산은 문학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동시에 고통스럽게 유지해왔던 이윤배반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울은 장위고개의 막노동꾼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생애를 기록한 『깊은 강은 흐른다』와 수필집 등을 발표하며 작가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공간이다. 단, 문학가동맹 대전지부 위원장을 지내며 계급갈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창작한 소설가였다는 엄연한 사실은 “이데올로기와의 싸움”¹³⁾을 하는 지난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염인수의 회고에서처럼 현대사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비극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로 가라앉는다.

『깊은 강은 흐른다』는 표면상으로는 ‘지식인·작가 → 노동자 → 작가’와 같이 작가/인칭 화자가 역경의 과정을 거친 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작 염인수는 단 한 순간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염인수가 ‘지식인, 작가’에서 노동자를 거쳐 다시 작가로 돌아가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 이면에는 억누를 수 없었던 “문학이라는 열병”의 불길이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이 노동을 하는 일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도 글을 쓰도록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까닭이다.

13) 염인수, 「수필」, 『정』, 미리내, 2003, 230면.

학교 이발은 아침, 점심, 저녁, 이 세때를 빼고서는 일이 없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는 소설을 구상해 보았고 글도 썼다. 나는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글 쓰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편쟁이에 비유해도 좋으리라.

이 원고가 발표될 것도 아니며 돈이 들어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써야만 하는가. 헛고생, 헛수고 나는 내 자신을 조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학이라는 열병으로 타오르는 의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불길은 꺼진 듯하다가는 다시 타오르는 간헐적인 반복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이라고 해서 좋은 문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리라.

그러나 펜을 잡고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민에 허덕이었다. 그것은 앞과 뒤 그리고 하늘까지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사색의 강은 말라버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남겨놓아야만 할 몇 편을 만들었다. <제2동 20호실>, <탈주>, <소나기> 등은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들이었다.(183~184면)

염인수는 이발 행상을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시선이 아니라 문학가의 눈으로 세상을 감각한다. 인용한 예문에서 보듯 그는 학교 이발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찾아오면 소설을 구상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염인수의 내면에서 타올랐던 “좋은 문학”을 향한 열망은 염인수로 하여금 문단을 떠나 노동자 신분으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글쓰기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아편쟁이처럼 글쓰기에 매혹되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지배 담론이 배치한 감성의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성의 분할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도록 추동한 원동력이 되었다.

5월 25일 구름

길 위를 걷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허리를 굽고 안정성없는 걸음걸이, 필요없는 비굴한 미소, 꺾꽂이처럼 굽히지 않고 살자는 게 긴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나의 변치않는 신조였는데.(252면)

6월 17일 구름

남포 뚝은 구멍 자국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것은 어느것이고 직선이다. 조금도 휘어지지 않고 있다. 왜 조금이라도 비틀어져서는 안된단 말인가. 이것은 자연뿐 아니라 인생 행로에 있어서도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은 아닐는지.(254~255면)

소설집 「장위고개」에 수록된 내용을 『깊은 강은 흐른다』에 재수록한 위 인용문은 장위고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염인수가 남긴 일기의 일부이다.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궁핍한 현실을 꾸려가던 염인수는 일기를 쓰며 힘든 노동이 끝난 하루를 기록한다. 여기서 그가 일기를 쓰는 행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현실을 버티는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예문에서 보듯 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삶의 신조를 떠올리며 고뇌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을 되뇌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묻기도 하면서 노동자로 배제된 삶의 공간을 진복한다. 그러므로 노동자 염인수에게 있어 글쓰기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끊임없이 사유하는 예술적 실천이었던 셈이다. 노동하는 인간 염인수에게 글쓰기란 어떤 공통적인 것이 부여한 몫들의 경계설정들을 문제시하며¹⁴⁾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사유하고, 자신의 몸이 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생계를 위한 사적 노동에 종사하느라 공적 활동에서 배제된 한 인간이 노동자이자 모방하는 예술가라는 이중적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 그에게 문학은 미학적 실천이며 정치적 활동이 된다.

4. 염인수 문학의 발원지, 해방공간 대전의 문학 풍경들

14)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13면.

체험에서 “좋은 문학”이 비롯된다고 믿었던 염인수는 『깊은 강은 흐른다』에서 해방공간 대전이라는 로컬을 채웠던 문학 풍경들을 스케치하면서 대전 문학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그의 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의 플롯 구조는 “서. 이제 말문을 열고”와 후기에 해당하는 장인 “19. 한 권의 책”을 제외하면, “1. 마지막 대전”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고, 다시 여러 지역을 떠돌다 대전을 다시 방문하는 이야기인 “18. 추억의 땅”에서 끝을 맺는다. 그리고 『깊은 강은 흐른다』의 서사가 진행될수록 해방공간 대전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모습과 대전문단의 상황이 어우러져 한 편의 문학적 풍경화가 완성된다.

먼저 『깊은 강은 흐른다』의 본격적인 스토리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대전의 상황을 상세히 재현하는 장면에서부터 염인수 자신의 문학적 자서전을 써 내려가는데, 이때 『깊은 강은 흐른다』에 묘사된 대전의 풍경은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전의 거리는 말 그대로 폐허였다. 그때 문예총 사무소는 시청 옆 어느 피난 간 사람의 빈집 한 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무소 안에는 문학 음악 연극 동맹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너무나 헤신헤신한 이름뿐인 사무소였다.

나는 그날 저녁 문학가동맹에서 일하고 있는 S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은 행동을 거쳐 목척다리끼를 걷고 있었다. 그곳 일대는 집 한 채 없는 폐허로 대전천 저편까지 바라다 보였다. … 중간 생략 … 대전 거리는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도립병원으로 인민군 부상병 위문을 갔었다. 마루바닥에 덩굴고 있는 사람, 눈까지 싸맨 사람, 팔 다리가 부러져 그 아픔에 소리치는 사람, 그러나 그 부상병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15~16면)

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염인수는 전쟁을 겪느라 폐허가 된 대전의 모습과 부상당한 인민군들의 상황을 묘사한 뒤 “6.25의 부역”이 염인수 자신뿐 아니라 여성동맹에 가입한 아내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연을 소개한다. 그런데 염인수가 자신이 체험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까닭은 그가 기본적으로 “문학이란 세부

묘사로 표현한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개체의 생명력을 온전히 표현하는 ‘완전품’¹⁵⁾으로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세부 묘사를 놓치지 않고 충실히 재현하는 염인수의 작가적 태도는 기록문학으로서 『깊은 강은 흐른다』를 창작하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도 한다. 여기서 섬세한 세부 묘사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한편 이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염인수가 기록한 대전문단의 풍경은 그가 문학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인들을 만나고 좌익활동 경력으로 인해 도피행각을 하며 살아간 그의 인생 회고록인 『깊은 강은 흐른다』의 도처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이를 보면, 대전 문학가동맹 열성자대회가 열리던 날의 상황과 문학가동맹 사무소의 위치, 그리고 그곳을 찾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염인수는 해방공간 대전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외모와 성격을 소개하고 문인에 대한 인상을 털어놓으며 솔직하게 논평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염인수가 『깊은 강은 흐른다』에 남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한 박용래, 민병성, 전형, 추식, 임완빈, 황린과 서울 문단에서 주로 활동했던 안희남, 김만선, 임화 등의 문인에 대한 기억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을 거치는 시기의 대전 지역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① 그 외에 박용래는 그때에도 시제가 뛰어났다. 그는 세심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은은하게 감춰진 깊은 곳을 들춰내보이는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 중간 생략 … 그는 훗날에 좋은 시집도 남기었다.(30면)

② 어느날이었다. 호서신문에 있던 추식이 찾아왔다. 그는 조그만 체구에 마른 얼굴, 게다가 큼직한 테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시골 사람처럼 소박한 사람이었다. … 중간 생략 … 추식은 이때 소설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가 문학에 대해 큰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15) 김화선, 「새 것 찾기」와 로컬리티의 서사 - 염인수의 문학 세계, 『어문연구』 제 98집, 2018, 350면.

그저 언론인이란 인상 외에는 풍기는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후에 순풍에 돛을 단 배 모양, 문학 생활이 순조로웠다. 그가 6·25 직후 서울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76~77면)

나는 신문사 입구 접수계 옆에 한참 기다리다가 추식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걸음거리는 활기차 있었다. 뻐뻐말랐던 그의 얼굴은 흰하게 피어 있었다.

거기에 검은 테의 큰 안경을 여전히 끼고 있었다. 그는 그 신문사 문화부장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때 많은 글을 쓰고 있었다. 환경이 좋은 탓도 있으려니와 그의 문학적 성공은 한 마디로 경이적이라는 것이 알맞은 표현이리라.(222면)

③ 당시 문예총 책임자는 임완빈이었다. 그는 원래 신문인으로 시, 소설, 시나리오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한 마디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를 가지고 탐구해가는 골수의 인간성은 아닌 듯했다.

여하간 그는 신문인 황린과 더불어 대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인이었다. 흰출한 키에 미남형인 황린도 문학에 대해 재주꾼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도 임완빈과 마찬가지로 좀 깊이 파고 들려는 기백이 없어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사무에 바빴기 때문이리라.(126면)

④ 내가 문예총 사무소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낯선 귀공자 타입의 중년 사나이가 여러 회원과 같이 앉아 있었다.

“임화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임완빈이 나에게 임화를 소개했다. 내가 그때 본 임화는 차분한 귀공자라고나 할까. 좀 가까이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그때 나는 그와의 사이에 그저 인사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임화는 낙동강 전투에 중군했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때 그가 입고 있는 복장은 인민군이 입는 군복 차림이었다. … 중간 생략 … 임화는 그저 관에 박은 듯한 말을 한 것인데 그가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다. 임화의 축 처진 저 모습은 낙동강 전투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126~127면)

대전 지역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시인 박용래를 비롯하여 소설가 추식, 문화인이라 칭하고 있는 임완빈과 황린, 그리고 시인이자 평론가인 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위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문인들의 인상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무척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서신문에 근무하던 추식이 찾아와 작품을 청탁했던 일화를 전하는 인용문 ②는 소설가로 성공한 추식을 바라보는 염인수의 복잡한 감정이 읽혀 연민을 자아내기도 한다.

요컨대 『깊은 강은 흐른다』의 핵심은 작가 염인수의 문학적 연대기를 복원하고 있는 문학 활동에 대한 기억들에 있다. 그가 해방공간 대전에서 활동한 최초의 진보작가라는 점¹⁶⁾, 자신이 근무한 농사시험장을 배경으로 비판적 현실인식 태도가 돋보이는 단편소설들을 발표하며 공백기로 남아있는 대전 지역 소설문학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¹⁷⁾에서 염인수 자신이 이미 대전 지역의 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전문학 연구에서 복원되지 못하고 근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명을 받기 시작한 염인수는 문단과 단절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글쓰기를 해나갔고, 긴 세월 동안 그의 삶 전체를 기록문학의 형태로 완성함으로써 그의 문학사를 스스로 구성해 놓았던 것이다.

여든을 지나 아흔이 되는 나이까지도 직접 체험한 모든 일상의 사건들을 글로 남기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염인수는 서울에 정착해 살면서도 자신의 문학적 고향 대전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대전이라는 로컬이 염인수의 문학이 발원한 시원이기 때문이다.

대전역에 내렸다. 삼십여 년만에 바라보는 역앞 넓은 광장, 그리고는 목척다리, 다음에는 시청 도청으로 가는 길, 내가 그간 얼마나 그리워하던 거리였다.

16) 이와 관련한 연구로 김화선, 「헤테로토피아와 로컬리티의 미학」, 『장소, 로컬리티, 문학지도』 맥락과비평 연구총서 제12호, 도서출판 심지, 2017, 37~55면 참조.

17) 이와 관련한 연구로 김화선, 「해방기 대전 소설 연구 -염인수를 중심으로」, 『해방기 대전문학』, 대전문학관, 2018, 173~188면 참조.

금마 연동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그려보던 대전, 군산 해망동 뒷산에서 저 멀리 서해안 끝머리에서 어른거리던 대전, 서울 장위고개 노동관에서 샅에 몸을 기대고 눈 감고서 그려보던 대전.

나는 그 기나긴 나그네길에서 너를 잊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네 품안에 안길 길이 없었다. 어디서고 두어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면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전은 나에게 무서운 거리였다. 나의 생명을 노리었던 곳, 나의 많은 친구들을 앗아가 버린 곳, 나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 버린 곳, 나를 긴 세월 피난길로 쫓아버린 곳, 그러하건만 대전은 언제나 꿈속에서 그리던 그리운 고장이었다.(205면)

인용한 예문은 『깊은 강은 흐른다』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염인수에게 대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전을 떠나 “기나긴 나그네길”을 걸으면서도 대전은 언제나 “그리운 고장”이었다는 절절한 고백에서 우리는 염인수에게 대전이란 결코 품을 수 없는 공간이며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공간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깊은 향수의 대상이었다는 속내를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의 시간 순서를 거슬러 염인수가 대전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다시 대전을 찾은 이야기로 『깊은 강은 흐른다』의 서사를 구축한 이유는 대전이라는 지역이 그에게 문학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공간이기 때문이다.

비록 문단은 떠났어도 문학은 저버릴 수 없었기에 염인수는 지치지 않고 희망 없는 글쓰기를 이어갔다. 심연에 닿을 수 없었던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염인수는 두 시간 거리에 대전을 두고서도 그저 눈 감고 그려보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아마도 작가 염인수에게 있어 대전이라는 로컬은 불꽃같이 타올랐던 문학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잠재해 있던 문학적 내면의 공간이었던 까닭이다.

5. 나오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공간에서 추방당한 염인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끝없이 확인하고 글에 기대어 삶이 허락한 시간들을 버텨왔다. 언제 출판이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저 글을 썼고, 노동자의 하루를 이어가면서도 소설가로서 그리고 문학을 실천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나갔다. 식민지시대와 해방, 한국전쟁을 겪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념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을지라도 그는 “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떤 작가들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하지만, 염인수의 화두는 언제나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가?’였다. 그의 화두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 주목한 데에는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그의 기질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컸을 터이다. 그리하여 그는 “긴 시간의 굴레를 극복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려는 소망”에 따라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을 온전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깊은 강은 흐른다』를 염인수의 문학 자서전으로 읽는 이유 또한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염인수가 『깊은 강은 흐른다』의 집필을 끝낸 후 덧붙인 작가후기에서 “이 작품을 펴내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새 세대에 감사하며 아울러 유구한 세월이란 공간에 머리 숙인다”고 표현한 부분은 자신의 삶에 보내는 헌사에 다름 아니다.

『깊은 강은 흐른다』의 결말에서 염인수는 문학을 “잊어버린 채 한 것이지만 나의 깊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사십여 년 전에 뿌린 “문학이란 씨앗”은 “길가에서도 자랐고 얇은 밭에서도 자랐으며 때로는 가시덩쿨 속에서도 자랐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고 시들시들 죽어갈 듯하면서도 그 작은 자라왔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그가 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길러온 시간은 ‘깊은 강’의 이미지로 공간화된다. ‘깊은 강’으로 치환된 염인수의 인생은 그 스스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친 시간들의 기록이며, 지배 담론이

배치한 패러다임 외부에서 경계사유를 펼친 지도그리기의 흔적들이다. 말하자면 염인수에게 로컬리티란 삶-지식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실천적 삶의 토대였던 것이다. 염인수가 보여준 지정학적 글쓰기는 문학장 외부에서도 진실한 글쓰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지역문학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염인수, 『깊은 강은 흐른다』, 도서출판 심지, 1989년.

2. 논문 및 단행본

김화선, 「헤테로토피아와 로컬리티의 미학」, 『장소, 로컬리티, 문화지도』 맥락과비평 연구총서 제12호, 도서출판 심지, 2017.

_____, 「해방기 대전 소설 연구 -염인수를 중심으로」, 『해방기 대전문학』, 대전문학관, 2018.

_____, 「새 것 찾기'와 로컬리티의 서사 - 염인수의 문학 세계」, 『어문연구』 제98집, 2018.

류지석, 「사회적 공간과 로컬리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옮김,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심산출판사, 201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엮음, 『선망과 질시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06), 소명출판, 2013.

송기섭,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권, 2005, 5~25면.

윌터 D. 미놀로, 이성훈 옮김,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에코리브르, 2013.

윌터 D. 미놀로, 김영주 외 옮김,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현암사, 2018.

유기룡, 「國文學研究에서 망각지대로 남은 記錄文學」, 『국어국문학』 제100권, 1988.12, 179~188면.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Abstracts】

Local Life and Geopolitical Writing

– Focusing on Yeom In-soo's *Deep rivers flow*

Kim, Hwaseo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local in the full-length novel *Deep rivers flow* written by Yeom In-soo who was active in the liberation space war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geopolitical writing reflected in his literary works. Yeom In-soo wrote in his novel, *Deep rivers flow*, all his life history, which began to escape as a worker because of his leftist activities. Superficially, this work takes a structure that restores its identity as a writer, but he never gave up on his identity as a writer the whole time. For him, who never stopped writing while living as a worker, the writing was an artistic practice that made him to kept thinking about who he was and how he should live.

And while suffering from his identity as a writer, Yeom In-soo showed in his novel *Deep rivers flow*, which shows how the literature of Liberation Space in Daejeon looked like, and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his literary world is rooted in Daejeon. His life, displaced from the novel *Deep rivers flow* to "*Deep River*," remains a trail of map drawing of the border thinking about the external paradigm of the dominant discourse, showing a possibility for local literature to pursue.

Key Words : Yeom In-soo, "*Deep rivers flow*", Daejeon, Local literature, Local, Geopolitical writing, Border Thinking, Record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